

'3高 신음' 소상공인 1000억 지원

전남도, 특별 이자 지원 규모 증액 지원 유형에 재기지원자금 신설 1인당 연간 최대 125만원 절감

전남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시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증액해 특별 이자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남도가 지역 10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업체 마련한 전국 최초 선도적 소상공인 상생금융모

델이다.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0억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전남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 상향한 우대보증을 지원하며, 전남도는 이자지원을 기존 2~2.5%에서 3~3.5%로 1%p 상향 지원한다.

특히 특별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 가산금리를 신용 구간별로 차등화해 고신용자 2.0%, 중·저신용자 1.7%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금리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지원 유형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기존 2개에서 올해부터 3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자금을 신설, 추가했다. 오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폐업

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 자금 신청 접수는 11일부터다.

지원 사업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고신용자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했던 중·저신용자도 차별 없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경우,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최대 6%정도 감면 혜택을 받아 1인당 연간 최대 125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올해도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주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채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장터, aT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 선정

5년 연속 선정...20억 지원 받아 2월 13일까지 설 할인전 운영

전남도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할인 지원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aT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신선 및 농축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일정한 수준의 공급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도장터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20억원을 지원받아 약 31만명의 소비자 발상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 남도장터 농축산물 할인 지

원 사업은 1월 11일부터 1차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주간별로 소비자 가격 안정과 수요 상황에 따라 여러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1차 할인행사는 남도장터 쇼핑몰(<https://jnmall.kr>)에서 진행되며 할인 30%, 1인 최대 2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강경호 (재)남도장터 대표이사는 "5년 연속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급자인 도내 농수축산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급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에서는 '푸른빛 화통점정'이라는 주제로 오는 2월 13일까지 자체 설 할인기획전을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쌀 새청무, CU편의점 김밥·도시락으로

BGF리테일에 1만3000여t 공급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로 만든 김밥과 도시락을 CU편의점에서 계속 맛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2021년 BGF리테일과 공급협약을 하고 2021년 1만2800t, 2022년 1만3000t, 2023년 1만3000t에 이어 새청무쌀을 올해도 1만3000여t을 공급하기로 했다.

BGF리테일은 고객과 지역사회에 좋은 친구 같은 기업(Be Good Friends)으로 국내 편의점 대표 브랜드 CU를 통해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고, 전남과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전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고품질 새청무쌀은 신동진쌀과 정무쌀의 장점을 모아 전남도에서 육종한 품종이다.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가 돌고, 윤기가 흐르며 쫄쫄한 식감이 있어 도시락, 삼각김밥은 물론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다.

CU편의점에 시판 중인 김밥, 도시락 등 모든 미반류 간편식에 새청무쌀을 단일품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1만 7천여 CU편의점을 통해 판매돼 젊은 엠지(MZ)세대에겐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1년부터 전국 CU편의점에 전남 새청무쌀로 만든 김밥 등을 판매해 전남쌀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꾸준히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쌀을 비롯한 전남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쌀 우수성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TV, 라디오, 유튜브, 온라인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대량 구매처 확보를 통해 쌀 값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직업계고 학생 40명이 독일·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로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에 나섰다. (전남도 제공)

전남 직업계고 학생 40명 유럽 선진기술 배운다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27일까지 전공기관 매칭 교육

전남 직업계고 고등학생 40명이 독일·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에 나가 2주간 유럽의 선진기술을 몸소 체험한다. 사전 영어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농·상업 분야의 해외 선진 기업, 연구소, 직업학교를 찾아 기술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가르침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는 우수한 실력을 뽐내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럽 선진기술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능 분야 연수단 20명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직업학교(Carl-Bosh-Schule Heidelberg), 자동차 기업(Mercedes-Benz plant in

Sindelfingen), 드론 교육기관(Drone flight academy)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농·상업 분야 연수단 20명 또한 전공 분야에 맞는 기관에 매칭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사회공간 스마트팜(Cycloponics), 원예·조경 전문학교(Ecole du Breuil), 식품 테마파크(FICO Eataly World), 농업전문학교(Inforama Rutti) 등을 방문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2월 23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 지급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

집 및 활용 동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월께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21만명에 1279억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사회서비스원, 34개 기관에 마스크 100만장 배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이 지난 10일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도내 34개 기관에 우선 마스크 100만장을 배부했다. (사진)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무송지오씨의 후원으로 모두 700만장의 마스크를 전달 받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소방서 등 199개 기관에 4차에 걸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3년 사회공헌·민간자원 14건(14억8000만원 상당)을 발굴해 도민 9만9000명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성과로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하기도 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구해 지역 공동체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전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